

개화기 서양예절서 연구*

오지석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서양 예절의 소개: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의 『서례슈지』(西禮須知, 1896·1902)
 1.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는 누구인가?
 2. 서양 예절(西禮): 『서례슈지』(西禮須知, 1896·1902)
- III. 서양 예절 수용과 내재화: 유동작(柳東作)의 『교제신례』(1905)
 1. 서양인과의 교제와 서양 예법(西禮)
 2. 새로운 서양 예법서: 『교제신례』(1905)
- IV. 서양 예절의 수용과 변용: 이철주 편 『서례편고』(1909)
 1. 이철주의 저술활동의 특징
 2. 편집된 서양 예법서: 『서례편고』(1909)
- 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07>

* 이 논문은 2020년 숭실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후속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ABSTRACT •

A Study on Western Etiquett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HK Prof., Oh, Jie-Seok(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cceptance pattern of Western etiquette by examining Western etiquette books to see if they specifically affected our live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ed at the Western etiquette and exchange patterns of Western etiquette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based on John Fryer's missionary "Seorye Shuji" owned by Soongsil University's Korean Christian Museum, Yoo Dong-jak's "Gyoje Shinrye" and Lee Chul-joo's "Seorye Pyeongo".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s the pattern of the metamorphosis of culture: introduction and education of Western etiquette by Westerners, active acceptance by Koreans, and transformation for socializing (exchange) with the West.

Key words: Enlightenment Period, Western Etiquette Books, Seoryesuji
(西禮須知), Gyojesinrye (交際新禮), Seoryebyeongo(西禮便考)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서학 윤리학, 개화기 기독교 윤리등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서양 예절, 서양예법의 수용을 서례서(西禮書)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전쟁을 통해 건국한 것이 아니라 왕조의 교체로 성립되었다.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불교를 배척하고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성리학을 채택한 조선은 초기 국법을 대신하여 『국조오례의』(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가 법제로서의 역할을 했고, 『경국대전』이 완성된 후 이 두 책은 조선 500여 년간의 통치에 기초와 근간이 되었다.²⁾ 조선은 예법서 간행의 오랜 전통이 있다. 국가의 5가지 예식을 다룬 『국조오례의』에서부터 한 가정에서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내훈』)나 예의 범절에 대한 일상 의례까지 예(禮)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과 청과의 전쟁 후 국가 재건을 예를 통해 해야 할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 지배계층은 “예가 사회생활의 기본 질서로 인식되었던 유교 사회에서 예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일종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³⁾으로 인식하였다.

1) 근대전환기의 서례서(西禮書)는 『서례수지』, 『교제신례』, 『보통교육(普通教育) 國民儀範』, 『서례편고(西禮便考)』 등이 있다. 서례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허재영,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西禮須知(서례수지)』 연구”, 『화법연구』 29(2011).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출판과 유통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5(2020)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이철주(李喆周)의 『서례편고(西禮便考)』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7(2021)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반교어문연구』 61(2022)

2) 이재룡,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예문서원, 1995), 245-246.

3)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조선은 개국 이래 고수해온 해금정책海禁政策에서 벗어나 1876년 개항과 더불어 문호를 개방을 한다. 이로써 중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와 정식적으로 조약을 맺고 교류하기 시작한다. 조선은 미국과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맺은 후 1883년 영국·독일, 18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는 단순히 서양의 문물의 전파에 그치지 않고 관료, 외교관, 의사, 외교관, 선교사, 상인, 여행가, 군인, 교사, 지리학자, 종군기자, 화가 등 다양한 직업의 외국인들이 유입으로 파생되는 인적 교류의 풍경이 발생한다. 근대전환기 조선은 개국 이래 지켜오던 의례와 예법의 대상에도 변화가 생긴다. 왜냐하면 개항이전까지 의례와 예법의 대상은 주로 나라 안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외교 대상이 지리적으로 확장 확대되고, 대한제국기에 이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거류민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외국인들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국과 교류함과 외국인과 교제함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예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박은식은 이런 상황을 유동작의 『교제신례交際新禮』序에서 “아, 오늘 각국의 교제를 춘추시대에 비교하면 어찌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온 하늘 아래 전 지구 위에 증기선과 철도가 배틀처럼 왕래하여 말이 다르고 풍속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형제처럼 교류하니, 예가 여기에서 생겨난다.”⁴⁾고 표현하고 있다. 권두연은 이와 같은 상황을 “국내에 유입된 서양인의 수가 늘어나고 그 부류 역시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

759.

- 4) “噫, 今日各國之交際, 時春秋之世, 豈可同年而語者哉. 普天之下, 全球之上, 輪舶鐵軌往來如織, 殊音異俗之人, 皆交涉如兄弟, 而禮於是乎生矣.” 朴殷植, “交際新論序”, 柳東作 述, 『交際新禮』, 博文社, 1905.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교제신례)』-출판과 유통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5(2020), 112에서 재인용.

면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양 학문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활동하던 16세기부터 있었다. 마노니가 서양의 실천학에 대한 소개와 동아시아 전통에 접목하면서 『서학수신』, 『서학제가』, 『서학치평』 등으로 표현하면서 ‘서학’이라고 표현하였다.⁶⁾ 서양 학문을 서학이라고 불렀듯이 서양 예절 혹은 서국 예절을 ‘서례’라는 표현한 용례를 보면 『한성순보』 1884년 8월 1일자 기사 “서양사람은 서양을 돕는다”에서 프랑스와 중국이 베트남 북부지역의 통킹(東京)지역을 두고 분쟁을 다루면서 “서례西禮로 절함이 오래되었는데”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서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대한제국의 학부가 편찬한 교과서 목록과 제목이다. 1894년 학문아문이 설립되고 이후 『국민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 등의 공교육 교과서가 간행되면서 서례를 다룬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의 『서례수지(西禮須知)』도 간행된다. 여기서 서양의 예법을 구체적으로 ‘서례’라고 언급한다. 권두연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제국시기의 서양예법서는 『서례수지』·『교제신례』·『서례편고』로 총 세권이다.⁷⁾ 이 시기 동서양 예법을 다룬 책이 있는데 진희성의 『보통교육국민의법전』(1908)이다. 여기서 개화기 서양예절서 연구라는 취지에 맞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앞의 세 권을 다루기로 하자.

이 연구는 이 세권의 서양예법서(서례서)의 문헌 분석을 통해 근대전환기 서양의 예절 또는 예법의 수용과 소개, 교육은 근대전환기의 모습과 외국인과의 교류의 흔적, 그리고 에티켓에 대한 갈증을 잘 드러내고, 예법의 대상이 외국인에까지 확대되지 과정 속에서 전통 문화와 서양 문화

5)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교제신례)』-출판과 유통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5(2020), 74.

6) 오지석, “오랑캐에게 예절을 배우다”, 『기독교사회윤리』 42(2020), 141~144.

7)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반교어문연구』 61(2022), 141.

의 접점이 충돌로만 이해하지 않고 수용과 변용의 단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근대전환기 세 권의 서양예법서 가운데 프라이어의 『서례수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초대 학부대신이었던 박정양은 1881년 조사시찰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1887년 주미공사로 당대 일본과 미국을 체험한 인물이며 학부 과장이었던 이상재 또한 1881년 조사시찰단으로 참여했고, 박정양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그를 수행하였다. 이는 학부 교과서 선정과 집필에 일본과 미국 외교사절 경험이 있는 이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이 자신들의 서양인과의 교제交際 경험을 통해 풍속과 문화교류라는 방향성을 정하고 서양예절의 소개와 교육을 위해 프라이어의 『서례수지』를 선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II. 서양 예절의 소개 :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의 『서례수지』(西禮須知, 1896·1902)

1.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 1839~1928)는 누구인가?

존 프라이어를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설충수의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2020)⁸⁾, 조병한, “근대 중국의 개혁과 서양인-로버트 하트와 존 프라이어를 중심으로.”(2004)⁹⁾, 오순방의 “현대중국번역의 초석을 다진 선교사 존 프라이어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所藏) 존 프라이어의 한적(漢籍)들”(2000)¹⁰⁾, “科技后蒙到

8)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 『한국교회사학회지』 56(2020), 159-193. 이 연구는 다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존 프라이어’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그의 생애와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9) 조병한, “근대 중국의 개혁과 서양인-로버트와 존 프라이어를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34(2004).

10) 오순방, “현대중국번역의 초석을 다진 선교사 존 프라이어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小説后蒙：晚清时期傅兰雅的后蒙活动”(2003)¹¹⁾과 “청말의 번역사업과 소설작가 오견인”(2005)¹²⁾ “존 프라이어의 소설현상공모활동과 清末의 新小説 《醒世新編》”(2010)¹³⁾, “传教、翻译、启蒙、小说 - 19世纪 中文基督教小说的创作与传播”(2011)¹⁴⁾, 李爽·吳淳邦의 “从“时新小说”征文活动解讀傅兰雅”(2018)¹⁵⁾ 그 외에 남영만, “중국 산학서 「代數術」 券1, 券2에 나타난 算法에 대한 고찰”(2012)¹⁶⁾, 허재영의,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西禮須知(서례수지)』 연구”(2015)¹⁷⁾,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 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2017)¹⁸⁾, “제1장 계몽주의에 대한 사상적 접근 경향”(2019)¹⁹⁾, 강미정·김경남의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2017)²⁰⁾, 정성미·송일기의 “梁啓超의 『西學書目標』 내용분석”(2016)²¹⁾, 장의식의 “清末의 上海格致書院：시대변화와

(所藏) 존 프라이어의 한적(漢籍)들”, 「인문학연구」 30(2000), 251-283.

- 11) 오순방, “科技后蒙到小説后蒙：晚清时期傅兰雅的后蒙活动”, 「중국소설논총」 18(2003), 57-75.
- 12) 오순방, “청말의 번역사업과 소설작가 오견인”, 「중국어문논역총간」 14(2005), 287-323.
- 13) 오순방, “존 프라이어의 소설현상공모활동과 清末의 新小説 《醒世新編》”, 「중국소설논총」 32(2010), 279-315
- 14) 오순방, “传教、翻译、启蒙、小说 - 19世纪中文基督教小说的创作与传播”, 「중국어문논역총간」 28(2011), 117-215.
- 15) 李爽·吳淳邦, “从“时新小说”征文活动解讀傅兰雅”, 「중국소설논총」 54(2018), 155-169.
- 16) 남영만, “중국 산학서 「代數術」 券1, 券2에 나타난 算法에 대한 고찰”,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28-4(2012), 475-485.
- 17) 허재영,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西禮須知(서례수지)』 연구”, 「화법연구」 29(2015), 211-232.
- 18) 허재영,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 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한민족어문학」 76(2017), 64-104.
- 19) 허재영, “제1장 계몽주의에 대한 사상적 접근 경향”, 허재영·김슬옹·윤금선·김혜련·서민정 지음, 『한국 근대 계몽운동의 사상적 기반』, 경진, 2019, 9-79.
- 20)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약어문학」 71(2017), 253-288.

그 한계”(2018)²²⁾, 윤지양의 “清末 上海에서 출판된 西洋畫法 교재 《論畫淺說》과 《畫形圖說》 연구”(2018)²³⁾, 오지식의 “편하설의 『論理解』 연구: 근대전환공간의 최초의 한글 논리학 교과서”(2021)²⁴⁾ 이외의 연구로는 차영위(車穎威)의 “傅兰雅征文小说 《五更钟》 研究”(2015) 석사논문이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프라이어는 영국출신의 선교사이자 과학 전파자이며 서양 서적의 번역자로서 문화전달자라 할 수 있다.²⁵⁾

그렇다면 개화기 서양예절을 동아시아에 소개해주고, 대한제국의 학부가 수용해 전파한 『서례수지』의 저자 존 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1) 정성미·송일기 “梁啓超의 『西學書目標』 내용분석”, 『서지학연구』 68(2016), 415-450.
 22) 장의식, “清末의 上海格致書院: 시대변화와 그 한계”, 『중국사연구』 117(2018), 207-242.
 23) 윤지양, “清末 上海에서 출판된 西洋畫法 교재 《論畫淺說》과 《畫形圖說》 연구”, 『중국어문논총』 89(2018).
 24) 오지식, “편하설의 『論理解』 연구: 근대전환공간의 최초의 한글 논리학 교과서”, 『현대유럽철학연구』 61(2021), 147-178.
 25)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Fryer) 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 『한국교회사학회지』 56(2020), 161.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다보면 순수한 선교사로 평가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기독교 선교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기회를 틈타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과장한 사람”²⁶⁾의 부류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 프라이어의 경우 순수 선교사의 역할도 있었지만 세평은 후자처럼 전해지기도 한다.

존 프라이어는 1839년 8월 6일 영국 잉글랜드 켄트(Kent)주 하이트(Hythe)에서 가난한 순회전도자의 맏이로 태어났다. 그는 부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중국 선교를 준비하였다. 1860년 하이베리 사범대학(Highbury College)을 졸업한 후 1861년 홍콩 성바울서원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1863년 8월까지 임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그는 성공회의 평신도 선교사 즉 평신도 선교교사(a lay missionary teacher)로서 봉사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중국 교육체제는 결함이 있었다. 그는 1863년 여름 교사로서 선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동문관에서 영어 교사로서 성공회 선교 교사로 신청하여 12월 10일 영국성공회 선교사로 비준을 받는다. 그는 1864년 11월 약혼녀 안나(Anna Roleston)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성공회 선교부는 프라이어의 선교사 신분을 철회한다. 이에 대해 설충수는 프라이어가 여느 선교사와는 달리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영어교육을 통해 문화적인 의미 또는 종교 관념을 담아내고자 하게 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²⁷⁾

그는 우여곡절 끝에 1865년 가을 상하이의 영화서원의 교장이 된다. 그의 간접적 선교방법은 성공회 선교사들에 의해 ‘지나친 세속화’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교육을 통해 기독교 선교의 새길을 열어가고자 했다.²⁸⁾ 다시 말해 그의 선교정책은 전통적이고 직접적인 선교에서 교육

26) 조너선 스펜스, 『근대중국의 서양인 고문들』, 김우역 옮김, (이산, 2009), 182.

27)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 164-165.

28) 설충수, 위의 글, 166.

중심으로 그리고 서양 서적의 번역이나 지식 소개로 전환하게 되었다.²⁹⁾ 그는 1868년 5월 20일까지 영화서원의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1866년 11월 『상해신보』 편집을 맡아서 서양 서적관련 글을 번역해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양무운동에 감명을 받았고 자신이 실천해왔던 선교와 교육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면서 서양서적의 번역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학교 사업보다는 신문이나 저작을 통해 더 많이 서양의 사상과 과학을 전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설교보다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중국의 계몽운동이라고 보았다.³⁰⁾ 그는 영화서원에서의 교육경험과 『상해신보』의 편집활동을 통해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1868년 5월 31일부터 중국사회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강남제조국 번역관 일을 1896년 미국으로 가기까지 28년 동안 하였다.³¹⁾ 그는 강남제조국에서 28년 동안 90여종의 번역서와 중서(中西) 명목표 4종에 대한 편찬 등 강남제조국에서 출판한 서적의 절반가량을 펴냈다. 이후 이런 제조국에서의 번역 일 등을 모아 “강남제조총국 번역 서양서사략(江南製造总局翻译西书事略)”이란 글을 작성하는데, 이 글은 1880년 2월 29일 노스 차이나 헤럴드(North-China Herald, 중국명: 北华捷报)에 실렸다. 이 글에서 프라이어는 자신이 중국에 와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그의 번역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내가 중국에 거주한 지 이미 20년으로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오직 중국이 격치를 널리 일으키어 중국과 서양이 한 궤에 이르기를 희망할 뿐이다. 그러므로 평생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려 다른 것에 이르지 않았다.”³²⁾ 그는 이 외에

29) 설충수, 위의 글, 167.

30) 설충수, 위의 글, 168.

31) 강남제조국과 프라이어의 관계는 설충수의 논문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 III. 강남제조국에서의 활동(169-174)을 참고하라.

32) 王扬宗, 『傅兰雅与中国的科学启蒙』, (北京, 科学出版社, 2000), 49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 173에서 재인용.

도 『격치회편』 발간, 격치서원, 격치서실 등의 일을 맡았고 서양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전하고자 했다. 또한 익지서회와 협력하여 서양과학지식을 중국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초등교재 시리즈인 『격치수지(格致須知)』 시리즈 편찬에 공을 들였다. 프라이어는 1877년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1차 중국 선교사대회에서 교회학교 발전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며 주로 교회학교 교과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 익지서회(益智書會, The School and Textbook Series Committee)³³⁾에서 선교회 소속 선교사는 아니지만 서회 위원으로 추천되어 초·중등학교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당시 익지서회에서 다룬 과목은 산술, 대수, 측량, 박물학, 천문학 등 수학·과학에 대한 과목과 더불어 논리학, 정신철학, 도덕철학, 정치경제학 등에 관한 것도 있었다. 프라이어는 초등교재 주편집을 맡았다. 그는 과학교육과 종교전파를 결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1879년 10월 위원직을 사퇴했으나 서회가 그가 제시한 비종교적인 서적을 편찬하는 조건으로 서회의 편집권을 그에게 넘겼다. 그는 1896년 미국으로 갈 때까지 17년간 전체 편집을 책임졌다.

프라이어는 이른바 “동학서점(東學西漸)”의 역할을 하였다. 그는 1896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동방언어 교수로 부임해서 중국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가르치고 그 대학이 동양학, 중국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조국을 위한 번역도 지속

33) 익지서회는 1890년 상하이에서 열린 제2차 중국선교사대회에서 교회학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점점 확대되면서 중국의 구교육을 개혁하고 신식교육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영문명을 “중화교육회(Educational Association of China)”로 바꾼다. 중문명은 익지서회를 그대로 사용하다 1905년에야 “중화교육회(中華教育會)로 바꾼다. 중화교육회의 초대회장은 마티어였다. 1896년 프라이어가 중국을 떠나고 난후 중화교육회의 사업이 저조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 시기에 중국 교육사업과 과학지식의 보급, 발전이 이미 선교사들의 번역서 수준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전파자인가?’”, 181에서 재인용.

적으로 했다. 또한 미국에 유학 오는 중국 학생을 고무하고 돕기 위해 중문판 『미국가방대서원도설(美國加邦大書院圖說)』(1900년)을 편찬하였고, 『중국교육명록(中國教育名錄), The Education Directory of China』미국 교육부의 영문판 『중국 미학생획준입학기유(中國留美學生獲準入學記)』(1909년)³⁴⁾도 편찬했다. 이후 그는 중국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상하이와 한커우(漢口)에 맹아학교를 세웠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맹인교육이론』(1911년)을 편역하기도 했다. 그는 1915년 명예교수로 퇴임하여 1928년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 서양 예절(西禮) : 『서례수지』(西禮須知, 1896 · 190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과학 기술관련 자료 해제집』(2009)³⁵⁾에는 프라이어가 기획한 익지서회의 교회학교(미션스쿨) 초·중등 입문 교재 가운데 수지류9권³⁶⁾과 『격치회편』45권을 소개하고 있다. 프라이어가 원래 기획한 것은 10집(시리즈) 각 시리즈 8종 80권이였다. 그것을 분류해보면 자연과학1,2,3집-『광학수지(光學須知)』(1895), 『성학수지(聲學須知)』(1887), 『지학수지(地學須知)』(1883), 『화학수지(化學須知)』(1886), 공예·기술4·6집-『전학수지(電學須知)』(1887)], 사회과학5집, 의약7집 - 『전체수지(全體須知)』,³⁷⁾ 천문·지리8집-『천문수지(天文須知)』(1887), 『지지수지(地誌須知)』(1882)], 8집 『국지수지(國志須知)』, 세

34) 『중국 유학생이 미국 유학에서 수용할 규정』은 미국의 대학 제도, 대학 모집 현황, 중국 학생의 미국 유학 현황, 건의 및 충고 그리고 미국대학 일람표 등이 소개되어 있어서 미국유학을 원하는 중국 학생에게 중요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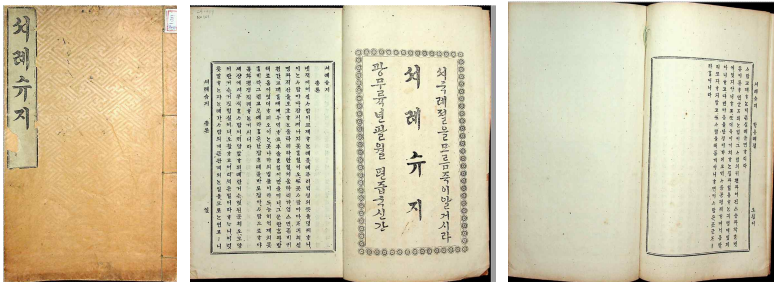
35)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과학·기술 자료 해제』,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09)

36) 여기에서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37) 『의약수지』는 설충수의 연구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는 소장하지 않고 있다.

계지리와 역사[9집『국사수지(國史須知)』, 세계 종교[10집『교무수지(敎務須知?)』] 등이다. 프라이어가 중국에 있을 때 발간된 것은 27종 이었다. 특히 과학기술관련 “○○須知”류의 서적들은 프라이어가 직접 저술하거나 번역하여 『격치회편』에 연재했던 것들을 대해 중문(中文) 만 오천자 내외로 편집하였고 주로 각 과목의 가장 기본 이론을 소개하였다.³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서례수지』와 『이학수지』이다. 『서례수지』는 대한제국이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겪게되는 통상과 예절에 대한 고민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 서적이고, 『理學須知』는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후 출판된 것으로 목록만 전해지고 현물이 전해지지 않았던 서양 논리학서³⁹⁾이다.

『서례수지』를 연구한 것으로는 허재영의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서례수지』연구”(2015)와 권두연의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2020),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2021),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2022)등이 있다.



〈그림 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38)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 184.

39) 여기에 대해서는 오지석의 「판하설의 『論理略解』연구: 근대전환공간의 최초의 한글 논리학 교과서」, 『현대유럽철학연구』61(2021), 147-178.를 참고하라.

『西禮須知』는 현재 1886년 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으로 전해지고 있고, 학부에서 편찬한 『서례수지』는 1896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1902년과 1905년에 중간된 것으로 보인다. 1902년본은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고 1905년 판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2년 발행된 국문본 『서례수지』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과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 원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디지털아카이브이다. 허재영은 규장각본과 한문본, 한글본을 합본 엮어서 영인해 『(존 프라이어著) 서례수지』(경진, 2015)에 출판하였다.

『서례수지』는 서양의 예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면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예법서라 할 수 있다.⁴⁰⁾ 이 서례서는 중국주재 영국 성공회 평신도 선교사 존 프라이어가 교회학교 초등교재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기획해서 편찬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서양인 그가 중국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다. 허재영은 이 『서례수지』에 대해 1900년대 한국 역사학자들의 세계사 역술의 주요 자료로서 “禮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지역·문화에 따라 예법이 달라짐을 고려하여 중국인에게 서양인의 교제 예법을 소개하고 있다.”⁴¹⁾

학부에서 발간한 중문본과 한글본의 차이는 크지 않다. 중문본의 장 제목을 보면 ‘總說(총설), 結交(결교), 宴客(연객), 拜客(배객), 談敘(담서), 用菸(용어), 衣飾(의식), 取樂(취락), 零事(영사)’이다. 한글본은 장 구분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장 제목을 의역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총론,

40)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 『반교어문연구』 55(2020), 79

41) 허재영, “혜제”, 허재영 엮음, 『(존 프라이어 著) 서례수지』, (경진, 2015), 5.

친구사귀는법, 손님을청하야잔치하는법, 친구찾는법, 친구와슈작하는법, 담배먹는법, 의복입는법, 질기는일, 향용례질'로 쉽게 읽고 읽힐 수 있게 번역하였다.

이 책의 간행 취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넷적에, 어진스람이, 교제하느례를, 베푸러, 빅성의뜻을, 덩케하니, 이는스람마다, 잠시, 썩나지못홀일이오, 쏘곳스람마다, 즈기의신명과, 직산을, 보호하느울타리다. <중략> 그런 고로, 레라 흠은 난잡흔 폐를 바로잡아 스람으로 하야곰 평정직케 하느 거시니라. <중략> 세계각국에, 풍속이, 각각부동하니, 이곳에서, 흥하느례가, 엇지, 다, 타처에, 합당하리오, 이제만일서양스람을, 디하야, 닐풍속만 흥코자하면, 반다시, 무식흔스람을, 면치못홀디니, 엇지가석지아니리오, 그런고로, 세상에, 통흥하느례를, 비호느거시, 가하니라⁴²⁾

『서레슈지』가 발간되었던 1897년 당시 대한제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총 3253명이었다. 청국인이 1273명, 일본인이 1758명, 서양인이 262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겨우나 체류 서양인의 수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하지만 청국인이나 일본인의 서양인들이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교제가 국가사이의 예전이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서 필요한 예법이 이라는 의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권두연은 『서레슈지』가 간행된 이유로 선진 문물에 대한 고종의 관심

42) 위의 책, 11.

43) 임선애, “개화기와 외국인에 관한 담론 연구-『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인문과 학연구』 17(2012), 147. 손정목, “개항기 한성 외국인거류의 과정과 실태”, 『향토서울』 38(1980), 29-82. 에 따르면 청국인이 한성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1882년 임오군란 진압 구실이였다. 이때 들어온 군역상인 40명이다. 1910년 말까지 경성에 거주한 청국 인수는 519호 1,828인이고 일본인은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성 거류가 시작되었는데 19호 89인이었고, 1910년 9월에는 8,794호 34,468인에 달했고, 서양인은 1912년 기준으로 306인이었다.

과 해외경험 및 체험이 있는 집필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⁴⁴⁾ 이는 『서레슈지』가 유통된 양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다음 인용문은 『서레슈지』가 독립협회 회원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읽혔음을 뒷받침하는 기사이다.

방효충씨는 독립 협회 회원도 아니요 방청 하는 친구인디 즈기의 돈으로 서레슈지라 하는 책 열권을 사서 도라간 일요일 독립 협회 토론회 회석에 들 여 노호며 여러 회원들이 둘러 보고 문건과 지식을 넓게 하였더니 방씨 꺾은 이는 참 기명 진보에 크게 유의 하니라 우리는 방씨를 대하야 갑히 치사 호노라⁴⁵⁾

독립협회는 당시 문명개화를 추구하면서 근대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이런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서레슈지』가 반입되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대외적으로 서양을 체험한 관리와 지식인의 요청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서양인과의 교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예법서의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레슈지』는 사립학교의 교재로 활용되었다.

前叅書官 尹鎬烈 大東紀年五冊 世界年契一冊 公法會通三冊 大韓地誌二冊 萬國地誌三冊 牧民心書四冊 泰西新史二冊 中日畧史一冊 俄國畧史一冊 美國獨立史一冊 埃及近世史一冊 精選算學(解式并一冊 算術新書二冊 新訂算術三冊 日語襟誌五冊 世界全圖四件 最新韓國地圖 二件 西禮須(知一冊⁴⁶⁾

『서레슈지』는 1896년 학부 교과서로 발행되어 문명개화를 열망하는

44)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143.

45) 『독립신문』, 1898.5.10. 3면 잡보.

46) 〈會興學(校義捐金額)〉, 황성신문, 1906.8.11, 4면 광고.

개화 지식인이나 학생들에게 서양인이 알려주는 서양예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III. 서양 예절 수용과 내재화 : 유동작(柳東作)의 『교제신례』 (1905)

1. 서양인과의 교제와 서양 예법(西禮)

개항하자 지리적 인식 부족과 접근 불가능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서 대한제국을 방문하는 서양인들이 급증하였다.⁴⁸⁾ 특히 18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관문이자 요충지인 대한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현상이 외국인의 관심을 끌었고 여행가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 갈증을 풀어줄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러시아, 일본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여행가들이 왔다. 이들의 직업은 지리학자, 민속학자, 천문학자, 화가, 외교관, 기자, 교사, 군인, 선교사, 전문 여행가 등과 같이 다양하다.⁴⁹⁾ 이들은 대한제국을 지리적 환경, 조선인의 성격, 풍속, 관습 등에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경험하면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 영국의 지리학자로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과 여행기(旅行記)같은 저서가 이러한 대표적 사례이다.⁵⁰⁾ 그런데 이 들이 남긴 기록은 단순히 여행지에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이 반영되기 마련이다.⁵¹⁾ 서양인의 입장에서 쓰였기에 대한제국을 바라보는

47)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145.

48) 홍준화, “제5장 개항기 외국 여행가들이 본 조선, 조선인”, 국사편찬위원회 편, 『이방인이 본 우리』, (두산동아, 2009), 214.

49) 위의 글.

50)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인화 옮김, 살림, 1994 참조.

51) 홍준화, “제5장 개항기 외국 여행가들이 본 조선, 조선인”, 214.

그들의 시선이나 관점은 잘 드러나지만 그들과 교류하거나 그들이 접촉한 대한인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⁵²⁾ 개회기에 방문한 서양인들은 대한제국을 “은자의 나라”나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이미지화하거나 대한인을 “더럽고 게으른” 습성을 지닌 민족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9세기 서양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문명화의 사명(mission civilisatrice)이라는 일종의 시대정신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⁵³⁾

한편 개항과 더불어 한국인들은 사절단 일원으로 서양 국가를 방문하게 되고, 서양식 교육이 전파되고, 서양 종교의 선교활동의 영향으로 유학생과 해외 취업자들이 바다를 건너 이방인과 직접적인 교류와 교제를 시작한다.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은 대한제국은 1883년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한다. 그리고 1887년에는 미국에 초대 주미전권공사를 파견하고, 1896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참석을 위해 사절단을 파견한다. 한국인들의 근대전환기 해외 경험은 사절단 파견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사절단의 수행원으로 참여한 유길준이나 윤치호는 당대로는 유일하게 일본과 미국에서 서양의 지식과 학문을 단순히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학했다. 해외에서 보고 듣고 관찰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경우가 드물고 이를 주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자료로는 민영환의 『해천추범』, 김득련의 『환구음초』, 박정양의 『미행일기』 등이 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윤치호의 『영문일기』는 대한제국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알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권두연이 허재영의 지적을 인용한 것⁵⁴⁾처럼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서양 예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예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서양인의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것

52)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145.

53)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285.

54)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 80.

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제를 위한 예법서와 차이가 있다.

보빙사와 수신사의 경험은 우리의 예법과 서양의 예법과이 다르다는 자각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서양 예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 까지 이르렀다. 서양의 예법과 우리의 예법이 다른 데서 벌어진 여러 가지 외교적 헤프닝은 “외국과 이 같은 몇몇 해외 경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양과 예법이 다르다 는 자각이 대두되었고 이는 서양 예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연 결된다. 그러니까 서양과 예법이 다른 데서 빚어진 갖가지 외교적 사건뿐 아니라 교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본격적으로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과 통상후 후에는 교제를 친밀이 하여야 유조 하”⁵⁵⁾는 『독립신문』의 기사처럼 대한제국 내부에서도 통상조약 이후 교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서양 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낯선 의례를 경험하면서 서양 예법에 대한 소개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직시하고 새로운 교제를 위한 필요를 국가 공식교과서의 형태로 출판한다.

2. 새로운 서양 예법서 : 『교제신례』(1905)⁵⁶⁾

『교제신례』의 저자는 유동작(柳東作)이다. 유동작은 1878년 생으로 대한제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898년 3월 미국에 갔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일본으로 가 1900년 명치대학 법률과에 입학하여 1901년

55) 『독립신문』, 1896.5.21. 사설

“외국과 통상후 후에는 교제를 친밀이 하여야 유조하니 일이 피차에 잇난거사라 흠을며 조선 곱흔 나라는 지경이 가난 호고 희군은 아조 업고 룩군은 지금이야 겨오 시작 홀터인즉 외국과 교제 홀 때에 위엄을 가지고 놈의게 디접 밧기는 아직 어려운즉 다만 조선이 디접 밧기는 관인과 빅성들 이 횡신을 잘호고 교제를 친밀이 하여서 약호고 가난 호드리도 겸잔 호 사 립으므로 보여야 홀터이라”

56)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142 쪽에 나온 <표 1>을 가져왔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국회도서관 소장 아카이브에서 접근할 수 있다.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04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귀국 1905년 8월 법무 법률기초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는 1910년 사망하기까지 법관양성소 교과과 한성재판소 검사 및 판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1905년 11월 법무 법률기초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교제신례』를 저술하였고, 저서로는 『물권법』이 있으며 서우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에 관련된 글들을 쓰고 종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현재 이 서적의 소장처는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코베이(인터넷), 박병호(개인소장), 국회도서관(서울본관) 및 <https://docviewer.nanet.go.kr/reader/viewer> 등이다. 또한 1906년 11월 1일 창간되어 1907년 4월까지 모두 6호가 발행한 『소년한반도』에는 서병길이 저자로 되어 있다. 『교제신례』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김영한, “『교제신례』”(2000)⁵⁸⁾와 권두연의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2020)⁵⁹⁾,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2022)⁶⁰⁾ 등이 있다.

57) 권두연은 유동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 김효진, “근대 한국의 변호사들”, 『동아법학』 23(1997), 161~165과 한혜영, “대한제국시기(1897~1910)의 도서출판에 관한 연구-정치, 외교, 행정도서를 중심으로”, 『출판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2011.10), 35를 제시하고 있다.(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 89.)

58) 김영한, “交際新禮”, 『향토연구』 24(2000). 김영한의 연구는 『교제신례』를 원문을 소개하고 있다.

59)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 『반교어문연구』 55(2020), 71-112.

권두연은 『교제신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서지사항과 주요 내용을 『서레슈지』와 비교하여 유동작의 『교제신례』의 특징을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60)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반교어문연구』 61(2021), 132-160. 권두연의 이 연구는 개화기의 대표적 서양 예법서(서레서)인 『서레슈지』·『교제신례』·『서레편고』를 분석하며 서레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유동작의 『교제신례』는 근대 초기 출판된 예법서 가운데 하나이다. 『교제신례』의 구성은 표지, 저자의 자서인「交際新禮序」, 박은식의 서「交際新禮序」, 목차, 그림, 본문(9장), 판권으로 1책 62쪽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제1장 경례(敬禮, 10조항), 제2장 방문(訪問 附 名啣, 16조항), 제3장 응접(應接, 5조항), 제4장 담화(談話, 23조항), 제5장 소개(紹介, 7조항), 제6장 복장(服裝, 10조항), 제7장 연회(宴會, 47조항), 제8장 여행(旅行, 제11조항), 제9장 깃연(喫煙, 5조항)으로 되어 있다. 『서례슈지』와 달리 구체적으로 서양 예법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서양인인지 불분명하게 ‘친구’로 되어 있으나 『교제신례』에서는 교제의 대상이 서양인임을 “歐米에서 行하는 握手의 禮는” 밝히고 있다. 또한 권두연은 『교제신례』와 『서례슈지』 등의 서양 예법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제8장 여행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제8장은 1항 여행 시 고려하는 행위의 필요성, 2. 자리 독점, 3. 기차 안에서의 통풍, 4. 차안에서 좌석 양보, 5. 차나 배에서의 교제, 6. 배에서의 식사 예절, 7. 갑판 좌석, 8. 배 안에서의 부인과 담화, 9. 배 안에서 업무 중인 사람과의 담화 삼가, 10. 선장의 지시를 따를 것, 11. 합승시 비용 처리로 되어 있어서 미국과 일본으로 이동한 그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다른 예법서와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유동작은 근대 초기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그는 근대전환기 외국인과 교제에서 요구되는 예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신의 유학 경험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서례슈지』가 중국주재 선교사 프라이어가 저술한 것을 학부에서 중문으로 먼저 간행하고 한글로 번역해 펴낸 것과는 달리 『교제신례』는 유입된 서양의 지식과 문화를 단순히 이식된 상태나 추종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수용하고 내재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동작은 『교제신례』 본문을 시작하면서 ‘무릇 예(禮)는 교제에서 필수적인 규범이다. 즉 친애와 공경과 겸양의 성심에서 일어나 질서를 바르게

하고 품위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夫禮者는 交際上 必須(헌 節文이니 親愛와 恭敬 是는 誠心으로 發하여서 秩序를 正히 하며 品位를 保하는 겨시니라)⁶¹⁾고 정의하고 있다.

권두연은 『교제신례』를 ‘교제’와 ‘신례’가 합쳐진 말로서, 교제에 필요한 말로, 교제에 필요한 새로운 예법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⁶²⁾ 달리 말하면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롭게 외국인과 교제시 요구되는 예의와 매너, 에티켓이라는 것이다.⁶³⁾ 이 책의 성격은 박은식이 쓴 「交際新禮序」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아, 오늘 각국의 교제를 춘추시대에 비교하면 어찌 같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온 하늘 아래 전 지구 위에 증기선과 철도가 베풀처럼 왕래하여 말이 다르고 풍속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형제처럼 교류하니, 예가 여기에서 생겨난다. 예를 행함이 현세에 각국이 통행하는 풍속에서 발생하였으니, 요즘 세상에 살며 요즘 사람과 교제함에 이 예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들과 나란할 수 없고 나라가 나라들에 나란할 수 없으니, 어찌 소홀히 하여 익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우리 대한은 옛날에 이른바 예의의 나라가 아니던가? 그러나 각국과 교류함이 타인보다 조금 늦어졌다. 그래서 외국인과 교제함에 대해 아직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문명과 야만의 관계됨이 실로 적지 않다. 내 친구 유동작(柳東作)은 이를 병통으로 여겨 현세 교제의 예를 취합하여 9항목으로 만들어 세상에 간행하였다. 이전에 교제에 대해 익히지 않은 이들 모두 이 책을 펼쳐보면 분명하게 문명의 풍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각국 사람들의 권세와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의 인사들에게

61) 서병길, “교제신례-交際上禮敬 : 현재 문명 각국의 통례”, 권정원·신재식·신지연·전민경·최진호 역, 『완역 소년한반도』, (보고사, 2021), 제1호, 93.

유동작, 『교제신례』, 현공림, 1905, 5.

62)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 75.

63) 위의 글.

다행함이 또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이에 서문을 쓴다.⁶⁴⁾

문호를 개방한 후 외국과의 교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외국인과 제대로 된 ‘교제’가 국격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파악한 상황에서 ‘교제’를 남녀사이나 개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의 관계나 교류를 외교로 넓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유동작은 그런 의미보다는 일상적으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보여야 할 매너나 에티켓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⁵⁾ 권두연은 『서례슈지』와 『교제신례』를 비교하면서 『교제신례』가 출판된 1905년에는 이미 각 공관의 외교관을 비롯해 선교사, 교사, 상인, 탐험가 뿐 만 아니라 종군 기자, 사진작가, 화가 등 많은 외국인들의 왕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제’에 있어서 새로운 예절, 다시 말하자면 서로 사귀어 친하게 된 대상에 대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예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가되었다고 본다.⁶⁶⁾ 하지만 그는 유동작이 대한제국의 법조인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서양 예법서를 저술할 정도의 전문성과 지식은 적어 보여 외국 저서나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⁶⁷⁾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잡지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단

64) 위의 글, 112.

“噫, 今日各國之交際, 視春秋之世, 豈可同年而語者哉. 普天之下, 全球之上, 輪舶鐵軌往來如織, 殊音異俗之人, 皆交涉如兄弟, 而禮於是乎生矣. 顧其爲禮緣起於現世各國通行之例俗, 則居今之世, 與今人交者, 不由是也. 人不可以齒於人, 國不可以列於國, 豈可忽而不講乎哉. 夫吾韓非古所稱禮義之邦乎. 然而與各國交涉, 差後於人, 故與外人交際, 尙未能人人曉焉. 其爲文野之關係, 實不淺歟, 吾友柳君東作以是病之, 乃取現世交際之禮, 彙爲九則, 印行于世. 凡前日之不講於交際者, 皆有以開卷, 瞭然可以進文明之俗, 可以得各國人之權心, 其爲吾韓人士之幸, 又孰大於是哉? 是爲序.”
(위의 글, 110-111)

65) 위의 글, 78.

66) 위의 글.

67) 권두연,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146.

행본으로 발간된 것을 동명의 제목으로 연재하는 것인데 『소년한반도』에는 매타 월콕스 노블이 지은 『아모권면』을 이응중(李膺鐘)의 이름으로 연재한 것이나 유동작의 『서례신례』를 제3호부터 필자가 서병길(徐丙吉)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한 것이다.

권두연은 『교제신례』에 대해 “근대 초기 간행된 일련의 서양 예법서 가운데 유일하게 유학 경험이 있는 국내 저자 유동작에 의해 집필된 서적으로 당시 서양 각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예법을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교제'라는 용어가 주로 국가 사이 교류를 가리키는 데에서 점차 사람과 사람과의 사귄, 특히 외국인과의 사귄으로 옮겨 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⁶⁸⁾고 평가한다. 이는 서양지식이 단순히 서양인에 의해 이식되는 과정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을 잘 드러낸 경우라 할 수 있다.

IV. 서양 예절의 수용과 변용 - 이철주 편 『서례편고』(1909)

대한제국기 서양 예절을 소개한 교과서로 1908년 진희성이 역술하고 의진사에서 펴낸 『보통교육 국민의범』이 있다. 이 책은 일본 동경 사범학교에서 사용하는 『의례교범(儀禮教範)』을 번역하여, 대한제국 광무 유신(1897~1904)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이다.⁶⁹⁾ 이 책은 동양식, 서양식의 의례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68)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 106.

69) 김현미, “『보통교육 국민의범』 해제”, 안종화·유근·박정동·이원금·노병선·진희성 저, 『근대수신교과서』 1, 허재영·박경기·남정희·김수경·김현미 역, (소명출판, 2011), 254. 이 책의 성격에 대해 『황성신문』 1908년 8월 30일자부터 9월 17일자까지 실린 광고에는 “문명안 의례를 잘 모르면 비루하고 거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에, 동·서양에 통용되는 의례를 밝히 분석하고 모아서 수신과(修身科)에 필요한 것을 완전히 하고자 간행하였으니 여러분은 계속 보시고 가르치시어서 문명 궤도와 함께 가실 것을 바랍니다.”

하지 않고, 전 세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1910년 이전 서양 예법서로는 출판된 마지막 단행본은 『서례편고』이다.

1. 이철주의 저술활동의 특징

이철주(李喆周)는 『서례편고』의 편집자 혹은 술자(述者)로 알려져 있다. 권두연의 연구(“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에 따르면 이철주는 ‘지식의 중간 유통자’이다. 왜냐하면 그가 근대 초기 서적의 출판이나 유통에 밀접하게 관련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철주는 이 시기 소화집이나 번역집의 편찬자, 교열자, 의학서의 서문을 쓰는 등 서적 출판⁷⁰⁾ 관련 일들을 하였으며, 그는 애국·계몽활동의 일환으로 논설을 쓴 개신 유학자이다. 또한 교육자로서 각종 학회 활동과 교사를 병행하였다. 점차 그의 글쓰기 활동의 내용이 교육과 학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소화나 소설, 가정보감류 등 실용적이고 오락적인 성향이 농후해진다. ⁷¹⁾ 그는 각종 학회활동을 할 때는 다른 개신 유학자처럼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여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대기를 번역한 『실업소설 부란극림전(實業小說富蘭克林傳)』의 교열자, 소화집 『절도백화』의 원석으로 필명을 쓰기도 했으며 다양한 저작 활동하였다.⁷²⁾ 이철주가 편집하거나 저술한 서적인 『

70) 1909년~1913년 그와 관련있는 단행본의 출판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례편고(西禮便考)』(光東書館, 1909) - 서양예법서, 편집자 2. 『실업소설 부란극림전(實業小說富蘭克林傳)』(普及書館, 1911) - 서양위인번역소설, 교열자 3. 『절도백화(絶倒百話)』(新門館, 1912) - 소화집, 편집자 4. 『가정일용보감(家庭日用寶鑑)』(匯東書館, 1912) - 가정보감류, 저자 5. 『수진경험신방(袖珍經驗神方)』(匯東書館, 1913/1912 상하, 1913 1책) - 의학사, 서문 작성

71)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57, 116-118. ‘〈표1〉 이철주의 매체 및 출판 활동을 보면 그의 저술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72)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서례편고』, 『절도백화』, 『가정일용보감』의 특징은 기존 지식이나 이야기, 정보를 수집·편집·종합하여 엮거나 묶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독자층은 어느 정도 한문 독해 혹은 한자 읽기 능력을 갖춘 지식인에 한정되었다.⁷³⁾ 그의 출판관계 활동은 새로운 지식의 전달이라는 계몽적, 교육적 목적을 띠고 상업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발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소화집, 가정류 실용서의 출판으로 전개되었다.⁷⁴⁾

2. 편집된 서양 예법서 : 『서례편고』(1909)

이철주의 『서례편고』(1909)는 학부 교과서인 프라이어의 『서례수지』(1896-1902)와 유동작의 『교제신례』(1905)에 이어 세 번째로 출판된 서양 예법서이다. 『서례편고』에 대해 처음 언급한 연구로는 개화기 서적을 연구한 김봉희의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1990)와 권두연의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2021)과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2022)이 있다. 김봉희는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에서 “『서례편고(西禮便考)』는 순전히 서양에서 행해지는 각종 예절 등을 총 17장에 걸쳐 소개한 것인데, 1896년 학부가 낸 것을 1909년에 다시 발행한 것이다.”⁷⁵⁾라고 언급한다. 권두연의 지적처럼 『서례편고』는 『서례수지』를 다시 발행했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⁷⁶⁾ 김봉희는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단순한 수신서라기보다는 앞서 각종 수신서를 학습한 후 익히는 교양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⁷⁷⁾라고 보았다. 하지만 하재영이

57(2021), 113.

73) 김준형, “근대 전환기 패설의 존재양상”, 『한국문학논총』 41(2005), 304.

74)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143.

75)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146.

76)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130.

77) 김봉희, 앞의 책, 144.

정리하고 해설한 ‘근대 수신서’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보다는 서양 예법을 소개하고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교과서와 실용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⁷⁸⁾



〈연대본〉



〈코에이본〉

『서례편고』는 1909년 광동서관에서 이철주가 편집한 책이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지, 목차, 본문, 판권으로 되어 있다. 책 이름 『서례편고』는 ‘서례’와 ‘편고’가 합친 말이다. 우선 서례가 함은 서양인과의 교제와 관련되는 서양 예절, 서양 예법, 서양 의례 등의 줄임말이고, ‘편고(便考)’는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 쓴 지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⁷⁹⁾ ‘편고’는 조선 시대 서적류의 한 분류로 쓰였는데 『악학편고(樂學便考)』, 『사전사례편고(祀典事例便考)』, 『문헌편고(文獻便考)』 등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풀어본다면 편고란 마땅히 알아야 내용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엮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서례편고』를 본다면 서양인과 교제하는 데 편리하도록 서양 예법을 편집하여 종합적

78) 허재영, “근대계몽기 교과서 해제”, 안종화·유근·박정동·이원규·노병선·진희성 저, 『근대수신교과서』 1, 허재영·박경기·남정희·김수경·김현미 역, (소명출판, 2011), 7-25.

79)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124.

으로 엮은 것이다.⁸⁰⁾

『서례편고』의 본문은 제1장 택교(擇交, 6절 / 『서례슈지』·『교제신례』 편집), 제2장 소개(紹介, 10절 / 『서례슈지』·『교제신례』 절충 편집), 제3장 천거(薦舉, 4절 / 『서례슈지』 ‘결교’와 동일), 제4장 청빈(請賓, 8절 / 『서례슈지』 ‘연객’과 동일), 제5장 방문(訪問, 21절 / 『서례슈지』 ‘배객’과 『교제신례』 ‘방문’과 동일), 제6장 응접(應接, 3절 / 『교제신례』 ‘응접’과 동일), 제7장 경례(敬禮, 8절 / 『서례슈지』·『교제신례』 절충 편집), 제8장 위의(威儀, 6절 / 독립된 장으로 구성, 내용은 『서례슈지』·『교제신례』 편집), 제9장 언론(言論, 15절 / 『교제신례』와 유사), 제10장 서신(書信, 4절 / 독립된 장으로 구성, 내용은 『서례슈지』 편집), 제11장 음식(飮食, 16절 / 『서례슈지』 ‘연객’ 가운데 음식만 따로 구성), 제12장 의복(衣服, 13절 / 『서례슈지』 ‘의식’·『교제신례』 복장 절충, 후반부 『교제신례』와 동일), 제13장 흡연(吸煙, 5절 / 『교제신례』 ‘깍연’과 동일), 제14장 악사(樂事, 8 / 『교제신례』 일부 편집), 제15장 연향(饌享, 38절 / 『교제신례』 ‘연회’와 대부분 동일), 제16장 귀천(貴賤, 7절 / 『서례슈지』와는 달리 독립된 장으로 구성), 제17장 항례(恒例, 14절 / 『서례슈지』 ‘영사’·『교제신례』 ‘여행’ 절충)으로 되어 있다. 『서례편고』는 ‘편고’라는 성격에 맞게 『서례슈지』와 『교제신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정보를 수집, 종합 편집한 책이다. 권두연은 편집방향을 ① 장별 목차의 세분화 및 재구성 ② 하위 항목별 내용의 세분화 및 재구성 ③ 서술 방식의 간략화⁸¹⁾라고 정리한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철주는 이전의 서양 예법서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편집방식을 적용하여 가령 개신 유학자이자 교육자이기에 제8장 위의(威儀)와 제16장 귀천(貴賤)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면서

80) 『서례편고』의 자세한 서지사항은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3, 『서례편고』의 체재와 구성 (124-127)을 참고하라.

81) 권두연,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138.

자신이 수집할 수 있는 서양 예법서의 정보를 절충, 보완, 종합한다. 이는 근대전환기의 서양사상이나 문화를 이식, 수용과 내재화를 넘어서 변용, 확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권두연은 이철주의 『서례편고』의 특성을 ‘위의’와 ‘귀천’으로 대표되는 예법의 태도와 정신이야말로 서양 예법서의 간행을 통해 이철주가 강조하고자 한 가치에서 찾고 싶다⁸²⁾고 말하며 “요컨대 이철주 의 편집 방식은 앞선 두 서적의 체재와 내용을 절충, 종합하면서도 교육자이자 개신 유학자로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덕목이나 태도를 서 양 예법에 관한 지식의 가공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이해”⁸³⁾하고 있다.

『서례편고』이후 더 이상 서양의 예법만을 다루는 단행본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권두연은 대한제국 시기 다른 교과서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 유효성이 차단되거나 협소해졌고, 통감부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과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고 서양인과의 교제보다 일본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중요시 되는 가치들이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⁸⁴⁾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1908년에 출간된 『보통교육 국민예법』과의 대조를 통해 서례서의 정형을 연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V. 나오는 말

서양의 종교 기독교와 학문을 통칭하는 ‘서학’은 18세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정착한 개념이지만 ‘서양 예절·예법’을 칭하는 ‘서례’는 개화기·근대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끝내 정착하지 못한 용어가 되었

82) 권두연, 위의 글, 140.

83) 권두연, 위의 글, 141.

84) 권두연, 위의 글, 144.

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학’이라는 용어도 서양의 근대학문을 담아내지 못해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양학’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듯이 ‘서례’라는 용어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화기, 대한제국, 통감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전반서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갔고 광복 후 이념갈등과 전쟁,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서양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국제 매너, 글로벌 에티켓 등의 용어로 대체되었다.

영국인 성공회 선교사 프라이어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미션스쿨의 교재로 기획한 서양예절서인 『西禮須知』를 학부에서 들여와 내용을 그대로 1896년 출판하고 1902년 한글로 번역하여 『서학수지』로 펴내고,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다녀 온 유동작이 1905년 저술한 『교제신례』를 출간하고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의 역할을 한 이철주가 편집한 『서례편고』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서양의 예절 또는 예법의 수용과 소개, 교육은 근대전환기의 모습과 외국인과의 교류의 흔적, 그리고 에티켓에 대한 갈증을 잘 보여주며, 예법의 대상이 외국인에 까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전통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의 접점이 충돌로만 이해하지 않고 수용과 변용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 사회의 변화를 窮變通久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외래 사상의 유입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갈등과 충돌의 모습을 띠지 않고 수용과 변용의 모습으로 ‘메타모포시스’로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근대, 혹은 근대 이후의 우리 사회문화의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서양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루고 있는 에티켓 또는 서양 예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독교윤리의 실천 연구의 영역을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원전

- 유동작, 『交際新禮』, 박문사, 1905.
 이철주 편, 『西禮備考』, 광동서관, 1909.
 이철주 편, 絶倒百話, 신문관, 19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해제번역총서, 『근대 수신 교과서』 1~3, 서울: 소명출판, 2011.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학부편집국 편, 『서례슈지』, 1902
 학부편집국 편, 『학부교과서일람』, 1910.
 허재영 편, 『(존 프라이어 著) 서례슈지』, 서울: 경진출판, 2015.
 『독립신문』, 『한성순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논문 및 단행본

- 강미정 · 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악어문학』 71(2017), 253-288.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交際新禮)』-출판과 유통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5(2020), 71-112.
 _____,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이철주(李喆周)의 『서례편고(西禮備考)』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7(2021), 109-148.
 _____,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반교어문연구』 61(2022), 134-160.
 권정원 · 신재식 · 신지연 · 전민경 · 최진호 역, 『완역 소년한반도』, 파주: 보고서, 2021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김영한, “交際新禮”, 『향토연구』 24(2000), 7-10, 89-150.
 김준형, “근대 전환기 패설의 존재양상”, 『한국문학논총』 41(2005), 289-329.
 김현미, “『보통교육 국민의법』 해제”, 안종화 · 유근 · 박정동 · 이원궁 · 노병선 ·

- 진희성 저, 『근대수신교과서』 1, 허재영·박경기·남정희·김수경·김현미 역, (소명출판, 2011), 254-258.
- 남영만, “중국 산학서 「代數術」 券1, 券2에 나타난 算法에 대한 고찰”,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28(4) 2012, 475-485.
-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연구: ‘그는 선교사인가 과학 전파자인가?’”, 『한국교회 사학회지』 56(2020), 159-193.
- 손정목, “개항기 한성 외국인거류의 과정과 실태”, 『향토서울』 38(1980), 29-82.
-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과학·기술 자료 해제』, 서울: 승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09.
- 안중화·유근·박정동·이원규·노병선·진희성 저, 『근대수신교과서』 1, 허재영·박경기·남정희·김수경·김현미 역, 서울: 소명출판, 2011.
- 오순방, “현대중국번역의 초석을 다진 선교사 존 프라이어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所藏) 존 프라이어의 한적(漢籍)들”, 『인문학연구』 30(2000), 251-283.
- _____, “科技啓蒙到小說啓蒙: 晚清時期傅蘭雅的啓蒙活動”, 『중국소설논총』 18(2003), 57-75.
- _____, “청말의 번역사업과 소설작가 오견인”, 『중국어문논역총간』 14(2005), 287-323.
- _____, “존 프라이어의 소설현상공모활동과 清末의 新小說 《醒世新編》”, 『중국소설논총』 32(2010), 279-315
- _____, “傳教、翻譯、啓蒙、小說 - 19世紀中文基督教小說的創作與傳播”, 『중국어문논역총간』 28(2011), 117-215.
- 오지석, “오랑캐에게 예절을 배우다”, 『기독교사회윤리』 42(10)(2020), 141~144.
- _____, “편하설의 『論理略解』 연구: 근대전환공간의 최초의 한글 논리학 교과서”, 『현대유럽철학연구』 61(2021), 147-178.
- 윤지양, “清末 上海에서 출판된 西洋畫法 교재 《論畫淺說》과 《畫形圖說》 연구”, 『중국어문논총』 89(2018), 379-408.
- 李爽·吳淳邦, “從“時新小說”征文活動解讀傅蘭雅”, 『중국소설논총』 54(2018), 155-169.
- 이재룡,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서울: 예문서원, 1995.
- 임선애, “개화기와 외국인에 관한 담론 연구: 『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7(2012), 143-167.

- 장의식, “清末의 上海格致書院: 시대변화와 그 한계”, 『중국사연구』 117 (2018), 207-242.
- 정성미 · 송일기 “梁啓超의 『西學書目標』 내용분석”, 『서지학연구』 68(2016), 415-450.
- 조너선 스펜스, 『근대중국의 서양인 고문들』, 김우역 옮김, 서울: 이산, 2009.
- 조병한, “근대 중국의 개혁과 서양인-로버트와 존 프라이어를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34, 일조각, 2004, 223-235.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 허재영, “근대계몽기 교과서 해제”, 안종화 · 유근 · 박정동 · 이원공 · 노병선 · 진희성 저, 『근대수신교과서』 1, 허재영 · 박경기 · 남정희 · 김수경 · 김현미 역, 서울: 소명출판, 2011, 7-25.
- 허재영,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西禮須知(서례수지)』 연구”, 『화법연구』 29(2015), 211-232.
- _____,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 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한민족어문학』 76(2017), 64-104.
- _____, “제1장 계몽주의에 대한 사상적 접근 경향”, 허재영 · 김슬옹 · 윤금선 · 김혜련 · 서민정 지음, 『한국 근대 계몽운동의 사상적 기반』, 경진, 2019, 9-79.
- 홍준화, “제5장 개항기 외국 여행가들이 본 조선, 조선인”, 국사편찬위원회 편, 『이방인이 본 우리』, 서울: 두산동아, 2009, 213-259.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기타

국회도서관(서울본관) 및 <https://docviewer.nanet.go.kr/reader/viewer>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 국 문 초 록 •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서양예절의 수용을 서양 예법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傳蘭雅) 선교사의 『서례슈지』(西禮須知)와 유학생 출신 유동작(柳東作)의 『교제신례』와 이철주 편 의 『서례편고』를 중심으로 문헌적 연구를 토대로 근대전환기의 서양 예절의 수용과 서양인들과의 교류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 이 연구는 서양인에 의한 서양 예법의 소개와 교육, 한국인의 적극적 수용 그리고 서양과의 교제(교류)를 위한 변용이라는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개화기, 서양예절서, 서례슈지, 교제신례, 서례편고
